

청년에 대한 교회의 인식전환과 사명: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C 목사님께

C 목사님!

그 힘겹고 피곤한 11년간의 부교역자 생활을 끝내시고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신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사모님과 정수,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런 저런 핑계로 7개월 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나마 기독교 학문 연구회(이하 기학연)가 발행하는 <신앙과 학문>의 청탁을 받고 나서야 말이죠.

저는 지난 12월의 사임 후 두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3월에 시작한 J 마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J 교회를 자유롭게 소개 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재미있게도 J 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문제 하나를 싸부터 자른 것이죠. 더 이상은 그 문제로 피로워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짜증나는 당회장 호칭을 강요당할 필요도 없게 되었구요. 없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J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치 않습니다. 전도사를 갈아뭇개는 목사도, 성도들의 절대 순

종을 요구하는 교역자도 없습니다. '성역'에 대한 교역자들의 발언 수위가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점이 걱정될 지경이니까요. 성도들은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얘기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여기서는 '당회장의 뜻이 만사 OK'라는 등식이 안 통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치 않는 교회나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교회의 다른 점은 행사와 성경 읽기 모두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성경 읽기와 골방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자부는 합니다. 그런데 왜 생활 속에서는 그 단순한 일이 실천되지 못하는 겁니까. 교회의 지도층이 말하는 QT와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행사와 숫자와 헌금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J 교회의 교역자들은 신실하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점을 우직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전 그 소신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 사이의 균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역자들과는 달리 그것이 공허한 말장난도, 일시적인 감정의 배설 행위도 아님이 쉽게 증명되거든요. 교인 수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대신 성도들 각각의 개성과 달란트를 존중해 주려는 배려도 펍이나 인상적입니다. 겉은 말씀과 찬양과 선교와 구제가 넘쳐 흐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게 능력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학식이든 가진 사람만을 우대하는 한강 이북의 모 교회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만하면 '바로 그 교회'에 가장 근접한 교회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대상에게도 본질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나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들, 즉 지엽적인 문제마저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럴 순 없을 테니까요.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할 테니까요. 중요한 건

Adiaphora로 인해 파생되는 견해 차가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교회냐”, “이러고도 복음과 양심을 운운할 수 있는냐” 는 불멘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뜻밖의 여유가 생기는군요!

처음엔 이런 행복이 나를 찾아 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꿈꾸듯 한 나날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난 7개월은 쉽지 않았습니 다. 문화 충격을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대형 교회의 사고 방식과 편안함을 깨야 했으니까요. 제게는 그 두 가지 중 한가지도 쉽지 않았습니 다.

대략 한 달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기학연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전환과 사명”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예상 밖의 청탁이라 매우 놀랐지요. 내색은 못했지만 무척 기뻐했습니다. 소식지를 볼 때마다 ‘이런 잡지에 원고 한 번 써 보면 원이 없겠다’는 상상을 종종 했거든요. 문학도들이 자기의 문학관에 큰 영향을 준 <창작과 비평>이나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하는 꿈을 꾸듯이 저 또한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원고 청탁을 받을 때만 해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나마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기학연에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보다는 불안이 커지더군요. 아무리 제목을 들여다 보아도 편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 이 소수 엘리트들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인지가 모호했습니다. 설마 엘리트만을 위해 글을 쓰라고 원고 청탁을 하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못 말리는 소심함은 자꾸 엘리트 쪽을 기웃거리게 만들더군요. 학술지 성격이 짙다는 점도 저를 신경질적으로 제목에 집착케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인식 전환 속에는 사명도 들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문제의 핵심이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바르게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본 것이지요.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교회는 호들갑을 떨면서 인식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전성으로, 또는 전시용으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실천이 목적인 인식 전환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 그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너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이런 문제로 공연히 시간을 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어떻게 이 화두를 풀어 가야 할지를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들쭉니다가 애초의 자신감에 문제가 없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것이지요. 이 주제는 나를 배제한 채 논의할 사안이 아니더군요. 원고 청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말도 상식도 안 통하던 교회 지도층을 그저 신랄하게 비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지도층의 인식 전환 부분이라면 꽤 할 말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돌연 이 주제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 놓아야 할 문제로 방향이 전환되자 불안해졌습니다. 가슴 속 깊이 침잠되어 있던, 외면하고픈 약점들이 수면 위로 등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불안 속에서 저는 일찍 담임으로써의 사역을 막 시작한 목사님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전환과 사명이란 질문에 답할 대상이 다름 아닌 저와 목사님이란 생각이 더 확실해지더군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한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면 훨씬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동안 목사님이 듣기에 좀 거북스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동역자의 우정어린 충고를 듣는다 생각하시며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 저는 목사님과 나눈 지난 날의 우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더군요. 우리의 약점과 인식 전환의 문제는 그 다음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

다면, 청년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비판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내리는 결론은 아닙니다만 우리 둘은 이미 인식 전환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군요. 때문에 저는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신세대 청년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물으며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목사님과 저에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나 진보적인 기질의 사람 모두에게 극복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제가 Y 교회의 청년 교역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목사님은 기획 국장이라는 멀고도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직책도 직책이었지만 우람한 체구만큼이나 큰 목소리 때문에 제 타입이 아니라고 가볍게 옆으로 밀어 두었습니다. 저에게는 고성 공포증(高聲恐怖症)이 있거든요.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95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별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귀기도 전에 목사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목사님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배려를 하면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일도 목사님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일을 거의 언제나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우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루 전에만 이야기 해줘도 조치할 수 있는 일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무조건 자신의 계획에 맞출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목사님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교역자 회의는 목사님의 단점만을 보여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비열하게 등 뒤에서 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동료 교역자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알아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을 아주 유심하게 살피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유는 자

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를 오랜 기간 살피는 것보다 한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입증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같은 논리에서 아무리 세련된 설교를 하고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은밀한 골방'이 폐쇄되었거나 기도까지 부정직과 과장된 제스처어로 오염된 사람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고 결정할 일도 아니구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버릇이 제게 있던 것입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도를 잃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용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년 교역자의 팀장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것은, 해당 청년부는 난리가 났었죠. 당회장 목사님께서 연합 청년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3주 전 하신 약속을 보기 좋게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청년 교역자가 교체되는 것을 참다 못하여 연합 청년들은 목사님께 제발 청년 교역자들을 1년마다 교체치 말아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청년부 팀장 목사님을, 그것도 납득키 어려운 이유를 들어 경질하셨으니 반발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바로 그 분이셨구요. 그래서 제 맘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말아야 할 청년 교역자 자리에 전도사인 제가 앉아 불안할 때마다 격려를 해 주던 후배가 타부서로,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간다고 생각하니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서더군요. 목사님은 바로 제 후배 자리를 가로채고 들어오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목사님을 향한 저의 심기가 편치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 무척 고민스럽더군요. 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번 인사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섭섭한 감정으로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어떻게든 순전한 마음으로 돕고 동역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

는 나와 너무 다른, 그것도 내 사랑하는 후배의 자리에 앉은 분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부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저와의 관계를 걱정한 분들은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속속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중 저의 신경을 몹시 예민하게 한 것은 목사님께서 제가 쓰는 칼럼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군요. 시국에 관한 칼럼,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견해, 공명선거 실천에 관한 모임 유치 등이 목사님의 비위를 건드렸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시국에 관해서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형적 보수주의자이셨으니까요. 그런 부담 속에서 저는 '96년 연초부터 또 하나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시도였지요. 저는 대화나 회의 때 목사님의 눈을 쳐다 볼 것을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말입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매우 싫어함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타입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저의 생각과 신학적 입장을 매우 못마땅해 하신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과 귀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청년 교역자의 팀장으로 오신 이상 저는 목사님을 힘껏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서 제가 무어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같이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한 목사님의 오해도 풀어 드리고 싶구요.”

약 3개월이 지나자 목사님의 반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회의석상에서 눈이 마주치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저를 보시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군요.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좀 더 진일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제 어깨에 손을 툇 얹으며 다정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Y 교회에 3년을 같이 있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던지요. 농촌 선교를 갔을 때는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방에서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로서는 기적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러나 제가 정작 더 놀랐던 건 목사님에게도 다른 부교역자들과 유사한, 이를테면 당회장에 대한 의문과 실망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저는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치 못했거든요. 농촌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야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 대접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셨는지요? 그때 저는 지난 8개월간의 작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오면서부터 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목사 되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그쳤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의 분명한 입장이란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밟지 않으면 청년 교역자 자리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지요. 얽힌 데 뉘엿겨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일종의 슬럼프였습니다. 청년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었던 것입니다. 저의 39살의 가을과 겨울은 그렇게 잔인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6년으로 짤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저는 '97년에도 청년 교역자를 계속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의 청년부 계획을 짜기 위하여 우리 5명의 청년 교역자가 핼블회관으로 들어갔던 일 기억하시죠? 그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교인이 경영하는 근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 귀를 의심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재주가 없어서 당시의 이야기를 정확히 재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가장 깊이 헤아려 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저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 교인을 두루 상대하실 뿐 아니라 부교역자 중 가장 오래 계

신 분이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Y교회에는 30명의 장로님과 100명에 가까운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좋은 분이 많음을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추켜세워 주셨습니다.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교인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사람을 가장 깊이 헤아려주는 사람이란 칭찬을 들으니 흥분되더라구요. 그러나 그보다 저를 더 감동시켰던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목사님이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물과 기름 내지 보수와 진보의 전형적(?)인 관계일 수 밖에 없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주 망한 것은 아니군요. 헛살지는 않았나 봅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라 하더라도 전혀 나와 다른 성격과 성향의 사람에게, 그것도 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찬 분에게 인정과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면 실패 뿐인 '96년은 아니지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위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C 목사님,

청년 교역자로 자처하면서도 제게는 청년들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청년들이 저처럼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들을 싫어할 꺼리는 막연한 피해 의식입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것은 가벼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게 있지요. 제가 치열함과 진지함을 거의 병적으로 쫓는다면 저들은 어떻게든 가벼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근거 없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0년대 학번들 중 책을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를 찾는 것이 저의 경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소 깊이가 있는 신학 서적이거나 인문 사회과학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

니다. 그에 비해 저들이 영상 매체를 좋아하는 정도는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아주 신실하다는 평을 듣는 지체들도, 그래서 저 자매는 뭔가가 다를 것이라 기대한 자매도 비디오 대여 횟수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의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디오를 많이 보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다만 신실한 청년들마저도 생각하기가 귀찮다는 듯 비디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들이 비디오만큼 책을 사랑하지도 삶과 신앙의 깊이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을 거의 신경질적으로 싫어하는 청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들은 내용을 별로 따져 보지 않더군요. 어렵고 진지한 것은 거의 무조건 나쁘고 썰렁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쉽고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볼 겨를도 없이 호감을 표시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요즘 청년들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냐'에 대한 물음을 '이것은 얼마나 재미있는가'로 바꾼 세대가 요즘의 신세대라고 말한다면 저의 주장이 지나친 것일까요?

그러나 요즘엔 저의 이런 생각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면에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과 제가 함께 위태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즘의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청년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재미와 쉬움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저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인내와 설득력이 필요한데, 이 면에 관한 한 매우 나약해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청년들이 재미와 쉬움을 선호하고 진지함과 어려움을 기피한다는 저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들어 낸 허상 때문에 그간 소중히 지켜 왔던 좋은 전통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은 아닌지 저는 자신

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요즘 청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정확히 파악하되 자신의 장점과 저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있는 그대로 알되 저들의 요구를 채워 주기 위하여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당함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없는 것을 가졌으면서도 저들의 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혼자만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저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저들을 한심하게 보지 않으려고도 노력하고 있구요. 이것이 요즘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인식 전환의 화두입니다.

C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에게는 저와 정반대 면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저의 약점이 비굴함과 과잉 친절이라면 보수적인 목사님의 약점은 지나친 당당함과 청년들에 대한 물이해가 아닐는지요. 저는 오랫동안 왜 목사님께서 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왜 목사님이 언제나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았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은 목사님께서 너무 당당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하여 대한 당당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처지나 인격이나 상황이 정당한 평가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신감의 수위는 조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의 우선권은 자신이 맡은 직책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질차를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목사님에게서 반복되는 것은 상대방, 특히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이 그 원인은 아닐는지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윗분의 심중은 그렇게 잘 헤아리시면서 어떻게 함께 동역하거나 목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디고 무감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저기서 들은 이야기와 교역자 회의에서 보이셨던 목사님의 스타일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요.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다면 하물며 청년들에게는 어찌하실까를 생각하니 심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지나친 이해나 과잉 친절도 문제입니다만 목사님처럼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라는 식의 당당함도 거품이 빠져야 옳습니다.

여기까지의 제 논의가 옳다면 목사님과 저는 성향이 다르고 사역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것같군요. 공동으로 노력하며 협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에 대한 바른 이해 이전에 자신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가 아닐까요? 청년들에 대한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저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비굴하지 않을 정도의 당당함은 아닐는지요. 저는 우리 시대의 선배 교역자나 어른들이 청년들에 대하여 많은 실수와 상처를 남겼다면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자신에 대한 무지 내지 착각에 돌리고 싶습니다.

C 목사님,

저는 인식 전환이 요즘의 청년들과 같아짐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보수적인 색깔이나 진보적인 색깔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의 책임을 서로의 다름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수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말겠다는 선한 욕심이 아닐는지요. 이것이 보수나 진보나에만 해당될 뿐 세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상대방의 개성과 상황을 불편해 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우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의 색깔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를 확인했을 때 상대방의 전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의 신세대 청년

들을 바라 볼 때 솔직히 제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들과 내가 과연 의사 소통이 될까 겁이 많이 났던 것이지요. 저들의 관심을 모조리 이해하고 저들의 다양하고 입에 맞지도 않는 취미를 따라잡을 자신도 없었구요. 그러나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사랑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부터는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문제는 사랑의 부족이란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억지로 입에 맞지 않는 저들의 취미를 억하려니 싫고 귀찮았던 것이지요.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서로의 취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얼 못하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자주 생각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절로 따라온다고 저는 이 말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 편지가 목사님과 저의 청년 사역에, 아니 전체 목회 사역에 조그마한 자극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8년 7월 9일

목사님의 열정과 기도를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지유철 드림 88